

# 자체적으로 자가배합사료 생산하는 당진지부



당진지부 자가배합 사료 공장, 당진군내 면 천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아래는 송형식 당진지부장(좌측)과 홍현웅 공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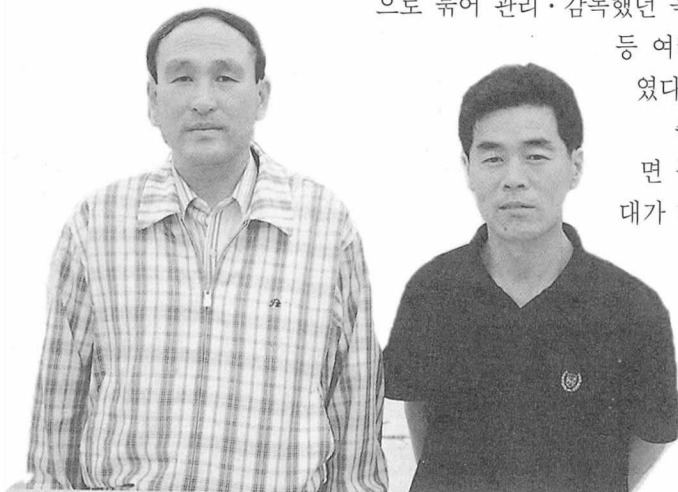
## 자가배합사료란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분쇄기·혼합기 등)을 갖춘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및 생산자단체 즉 자가배합사료 실수요자가 옥수수 등 곡물류 및 그 부산물과 박류, 조사료 보조사료를 확보한 후 자가 혼합하여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게 급여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료를 자가배합사료라 한다.

지난 98년 2월 정부는 자가배합사료법을 공포하고 자가배합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수요자에게는 그동한 사료품목 중에서 사후 관리품목으로 묶어 관리·감독했던 곡물 즉 식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옥수수, 밀, 보리 등 여러 가지를 양축농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일정 수준의 배합사료 생산 기준만 갖추게 되면 누구든지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돈농가가 돼지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전체 생산비중 보통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는 농장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고 값이 저렴한 사료의 생산은 많은 양돈농가들로부터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체 생산비에서 배합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 이유로 음식물 찌꺼기나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생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양돈농가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농가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배합사료를 직접 생산해 돼지에게 급여하는 형태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 사료공장 건립하여 자가배합사료 생산하는 당진지부

본회 당진지부(지부장 : 송형식)는 지난 98년 4월부터 사료공장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배합사료 생산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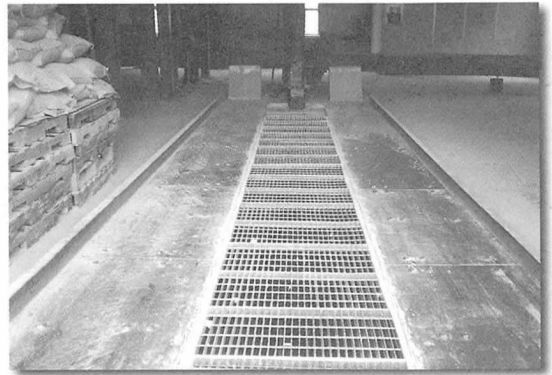
시작 당시 당진지부 송형식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이 총 10억을 사육규모별로 출자하여 당진양돈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였으며, 1일 사료생산 100톤 규모의 사료공장을 건립하였다.

전체 건립비용은 토지, 건물, 기계 등 11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토지와 건물은 당진군내 위치한 면천농공단지내의 2천평 부지에 법원 경매에 들어가 2차까지 유찰되었던 건물(400평)을 아주 저렴한 값에 매입하고, 기계는 당진축협이 사료공장 규모확장으로 인해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바꾸게 됨으로 먼저 사용했던 기계설비를 구입해 보수하여 설치하였다. 그 이외 50평 규모의 관리실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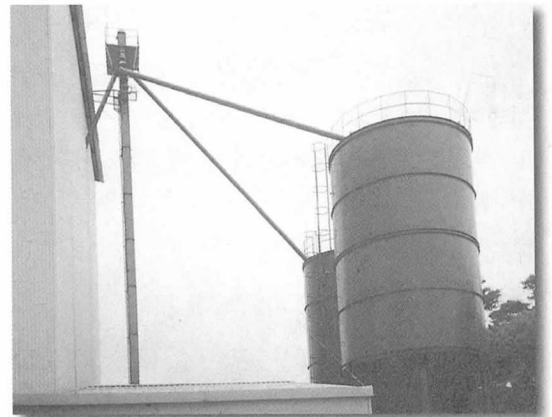
직원은 6명(관리상무 1명, 생산직원 4명, 경리여직원 1명)이며, 운반은 사료벌크차량을 소유한 외부인력 2명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다.

6명중 실제로 사료생산에 투입되는 인원은 4명으로 전체 생산라인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으로도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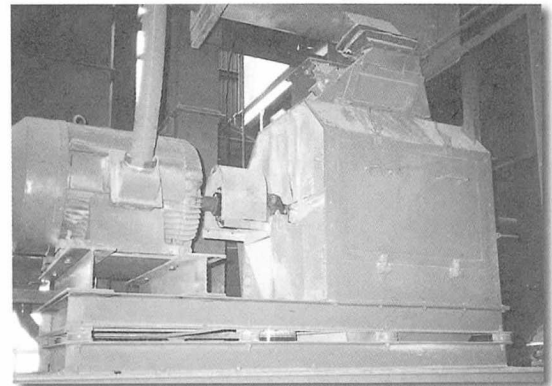
현재 사료생산은 월 1,500톤으로 생산능력의 60%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추가로 7명 이외의 5명의 회원이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어 조만간 월



▲외부에서 구매해 들어온 옥수수, 대두박 등이 투하되는 장소



▲사료원료 저장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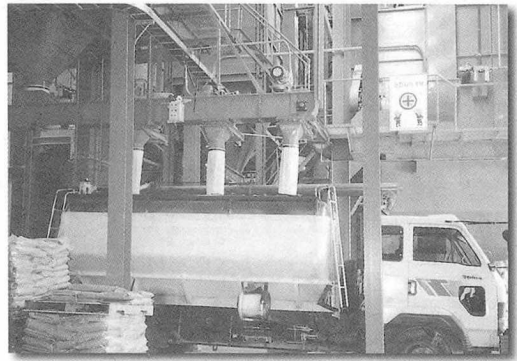


▲원료분쇄기, 저장되어 있던 사료원료가 분쇄기를 지나가면서 파쇄된다

2,500톤 수준의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료원료에 프리믹스를 투여하는 장면, 이곳에서는 미국 무어맨사의 프리믹스가 사용된다.



▲완성된 배합사료가 벌크차량에 실려지고 있는 장면

## 일반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저렴, 품질 우수

현재 당진지부에서 생산하는 자가배합사료는 젓먹이, 육성돈, 비육돈, 포유돈, 임신돈 등 입블임 사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 원료로는 옥수수과 대두박을 70 : 30 비율로 섞은 것에 미네랄과 비타민 등 미량요소가 100%

〈표1〉 자가배합사료 배합 비율표(1톤 배합시)

(단위: kg)

구 분	젓먹이	육성돈	비육돈	포유돈	임신돈
옥수수	653	691.5	757.5	722.5	817.5
대두박	300	275	210	180	85
식용유	10	5	5		
소맥피				50	50
1402	35	27.5	27.5	35	35
1404				12.5	12.5
CTC	2	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제공 : 당진양돈영농조합법인

〈표2〉 당진지부 자가배합사료 원가표

(단위: 원)

구 분	젓먹이	육성돈	비육돈	포유돈	임신돈
1kg 단가	249.23	229.32	218.83	239.06	230.80
25kg 단가	6,230	5,733	5,471	5,976	5,770
5톤 가격	1,246,150	1,146,600	1,094,200	1,195,300	1,154,000
가공비 및 운반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계	1,346,150	1,246,600	1,194,200	1,295,300	1,254,000

※ 가공비 kg당 13원, 운반비 kg당 7원

※ 자료제공 : 당진양돈영농조합법인



▲공장 직원이 사료생산 전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다. 이 공장은 4명의 생산직원만으로 배합사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

첨가된 프리믹스를 사료종류별로 적정량을 투입하여 생산하게 된다.

프리믹스는 돼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완전 배합 농축산 것으로서 현재 한국양돈진흥사업회를 통해 들어오는 무어맨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옥수수는 축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그 이외의 대두박, 소맥피 등은 일반 시중을 통해 구입해 들어온다.

당진지부가 자가배합사료공장을 가동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해 낸지는 99년 6월 현재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투입된 생산비용과 자가배합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했을

때의 출하일령 단축 등 정확한 자료화가 아직까지는 미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배합사료보다 회원농가가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20% 가량 저렴하였으며, 출하 일령도 예전보다 평균 15일 정도 단축되었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서 자가배합사료공장을 설립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곳은 당진지부 한 곳이며, 당진지부 이외에도 전국 10여개 지부에서 임가공을 통한 주문형 배합사료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 두가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당진지부는 사료공장을 설립하는데 투자된 비용을 향후 3~4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료공장을 설립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 생산량 한계 극복과 자금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당진군내에 사육되는 돼지사육두수는 약 25만 두이며 이중 당진지부 회원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진지부에서 설립한 자가배합사료 공장의 사료생산 능력은 1일 100톤 규모로 이는 1일 5만두의 돼지에 급여할 수 있는 양으로 전체 군내 사육두수의 25% 수준이며, 당진지부 회원 가운데서도 약 35% 정도만이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표3〉자가배합사료와 주문형 임가공시 생산비용 비교 (월 2,000톤 생산시)

주문형 임가공	자가배합
가공비 kg당 25원 2,000톤×25원(당진축협 기준)	가공비 kg당 13원(이윤포함) 2,000톤×13원
임가공비 5,000만원(운반임 제외)	가공비 2,600만원(운반임 제외)

※ 자료제공 : 당진양돈영농조합법인



▲송형식 지부장은 몇 년 전 대만을 방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검토한 끝에 지금의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하는 회원농가들은 사료이용대금을 매달 1일과 15일에 나누어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양돈농가는 참여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진지부 송형식 지부장은 “자가배합사료는 소규모로 뜻에 맞는 소수의 농가가 참여해 필요한 만큼만 사료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유럽 등 축산 선진국의 경우처럼 소규모로 생산된 자가배합사료를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자가배합사료 공장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지부에서는 참여하는 농가들의 자금 유동성이 건전해야 하며, 당진지부와 같이 지역의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누리는 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인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양돈**